

부곡동 신갈-안산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방 촉구건의안

의안 번호	50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5. 6.

발의자 : 홍장표의원 외 10인

1. 제안이유

- 국도42호선과 연결되는 신갈-안산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폐쇄로 반월, 시화공단 입주업체의 물류비용이 증가되고, 50만 안산 시민의 고속도로 이용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
- 또한 부곡동 I.C의 폐쇄는 안산시 교통량을 한곳으로 집중시킴으로서 안산시 전체의 교통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하루속히 폐쇄된 부곡동 I.C의 개방을 촉구하는 바임.

2. 주요골자

- 폐쇄된 신갈-안산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부곡동 I.C의 조속한 개방 촉구

- 국도42호선과 연결되는 신갈-안산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(부곡 I.C)폐쇄로 반월·시화 입주 중소기업체들의 교통체증으로 물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50만 안산시민의 고속도로 이용 불편으로 혼란과 그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.
- 부곡 I.C는 당초 설치계획이 없었으나 교통난을 분산시켜 국도 42호선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공단기업체및 50만 안산 시민의 고속도로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코자 시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추가 설치한 것입니다.
-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교통흐름의 악영향 및 대형사고 위험이라는 한국도로공사의 일방적 판단으로 이를 폐쇄시킴으로서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것입니다.
- 더욱이 인접된 안산 I.C와 연결되는 부곡동 정재국교앞 교차로 (국도 42호선 ↔ 중로1류 30호선 교차로)가 교통 다발지역으로 분류 폐쇄되어 더욱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
-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을 출입하는 승용차 및 화물차들이 안산 I.C를 이용함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물류비용이 날로 증가되어 중소기업체는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부곡동 정재국교 앞을 지나 고속도로를 진입하려는 차량들은 갈 곳을 잃게되며 인천방면으로 5km를 지나 되돌아 안산 I.C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- 이번 부곡동 I.C의 폐쇄는 안산시 교통량을 한곳으로 집주시킴으로 안산시 전체의 교통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안산시의 교통혼란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.
- 50만 안산시민은 당연히 안산시 초입의 부곡 I.C를 대다수 이용하고 있으며 차라리 안산 I.C보다 부곡 I.C를 원하고 있습니다.
- 이번 부곡 I.C의 폐쇄는 50만 안산시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한국도로공사의 처사이며 안산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.
- 반월, 시화공단 입주기업체 및 우리 50만 안산시민은 하루속히 폐쇄된 부곡 I.C를 개방해줄것을 바라면서
- 이상의 건의사항이 관철되기까지 우리 안산시 의원 및 시민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한국도로공사 및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

1996 . 5 . 6 .

위 건의자 :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 외 10인

